



임실군, 6.25 전쟁 제73주년 안보 결의대회 개최

6.25참전유공자임실군지회(회장 이종래)가 22일 임실문화회 공연장에서 6.25 전쟁 제73주년 기념식 및 안보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심 민 임실군수, 이성재 임실군의회 의장, 김효진 임실경찰서장, 남궁세창 교육장을 비롯한 각계 기관 및 사회단체장과 6.25참전유공자, 유가족, 군인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은 안보 결의문 낭독 및 만세삼창 등으로 진행됐으며, 자유 수호를 위한 전쟁의 역사적 의의와 교훈을 상기시켰고 회원분들께 표창과 감사패를 전달함으로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와 위로를 전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심 민 군수는 "6.25 전쟁은 대한민국 분단이라는 큰 아픔을 겪었지만 참전용사 한분 한분의 희생과 헌신이 오늘의 자유와 평화, 번영의 탄탄한 기반이 되어 눈부신 국가 발전을 이룩했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유공자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다음 세대가 나라 사랑의 마음을 잊지 않도록 하여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을 지켜나가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전북 응급의료종사자 지역간담회 성료

전북도는 지난 20일과 21일 양일간 무주 태권도원에서 전라북도 재난 및 응급의료연구회(전북대병원, 원광대병원) 주최로 응급의료종사자 지역간담회가 열렸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이송희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김은영 과장 중앙응급의료센터 김성중 센터장, 스마트의료지도 시범사업 전라북도 지역위원장 윤재철 교수 원광대학교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장 황 용 교수 등 관계기관 140여명이 참석해 전라북도 응급의료 및 재난의료 체계의 발전 전략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주요 내용으로는 김은영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장의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에 대한 발표와 함께 재난의료 체계 및 스마트의료지도 시범사업, 현장 및 병원 간 응급의료 이송시스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박형진 전주 덕진소방소 주임이 현장 및 병원 간 응급의료 종사자의 갈등에 대해 발표해 일선 응급의료 종사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다.

이송희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이번 전라북도 응급의료 종사자 지역간담회를 통해 전라북도 응급의료 체계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지역사회 응급의료 시스템에 인력과 장비, 시설 등을 적극 지원하는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김제치매안심센터-기전대 치유농업과 협약 체결

김제시(시장 정성주) 치매안심센터는 22일 전주기전대학 치유농업과(학과장 최연우)와 지역 내 어르신들의 치매관련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치매 친화적 환경조성에 기여 △건강생활 환경조성을 위한 산학연계 체계 확립 △치유농업 분야 현장 연구 및 기술 실용화 △치유농업사 양성을 위한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에 상호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특히 이번 협약을 통해 전주기전대학 치유농업과 학생 치매 파트너 교육 수료 후 학생들의 자원과 재능을 활용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치매 극복 활동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아 치매재활과장은 "양 기관의 상호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가 함께 돌보는 치매친화적 환경 조성에 한 걸음 가까워졌다"라며, "치매환자와 가족들이 지역사회와 공존하며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마음만은 항상 내 고향 진안에”

이상욱 前 국회의원, 진안군에 고향사랑기부금 1백만원 기탁

진안군 출신 이상욱(전) 국회의원 이 진안군에 고향사랑기부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이 전 의원은 제19대 유네스코 한국대표, 전북 프록슈루단 초대 구단주, 재경진북학우회 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제13대 국회의원(진안·무주·장수 평화민주당)으로 활발한 정치활동을 펼쳤다. 특히 이번 기부에 앞서 이 전 의원의 동생인 이상문 전 전북도의원 가족이 지난 3월 2일 3.1절을 기념해 진안군에 고향사랑기부금 200만원을 모아 전달한 바 있어 두 형제의 남다른 고향사랑으로 지역사회에 따뜻한 감동을 선사했다.



이 기어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앞으로 진안군 고향사랑기부제가 활성화되어 진안군을 비롯한 소멸위기의 지방이 활력을 되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춘성 군수는 "고향인 진안을 잊지 않고 가족들이 마음을 한데 모아 애정어린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에 보답해드릴 수 있도록 소중한 기부금은 가장 뜻깊은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감사를 표했다.

한편, 진안군은 연중 답례품 공모를 통해 돼지고기, 홍삼 등 35개 품목의 다양한 답례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숙박시설 이용권, 벌초대행권 등 개성있고 경쟁력 있는 기부자 맞춤형 답례품 발굴을 진행하고 있다.

/진안=우태만기자

전북새일센터, 일자리협력망회의 개최

전북여성새로일하기센터(전정희 센터장)는 22일 탄소산업제조연계 양성교육 일자리협력망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센터에 따르면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의 지원을 받아 기업 맞춤형 직업교육훈련인 탄소산업제조연계 양성교육 과정을 지난 21일 개강해 운영하고 있다.

탄소산업제조연계 양성과정은 탄소 산업 분야에 기초지식과 생산능력을 갖춘 우수여성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과정으로는 △직무소양교육 △직업전문교육 △취업대비교육 △현장실습교육 등으로 이뤄졌다.

이날 회의에는 △(사)벤처기업협회 전북지회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이노케이(주) △유니트스(주) △비나텍(주) 등 관련 업체 대표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참여 협력기업 이노케이(주) 김웅일 대표는 "구직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고 탄소 산업에 대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구직자와 그들을 필요로 하는 기업과 기관을 연결할 수 있는 최상의 프로세스를 구축했다"고 말했다.

전정희 센터장은 "탄소 산업을 비롯한 관련 분야의 중요성이 높아질수록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인력 양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며 "직업훈련과 일자리 협력망 구축으로 지역 내 인재 채용과 관련 기업의 성장 그리고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자세한 정보는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홈페이지(www.jwec.re.kr)나 전화(063-254-3655)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남원시 지사협, 아동청소년분과 금연 캠페인 실시

남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협의체)는 '제36회 세계금연의 날'을 맞아 흡연 예방 문화 확산과 남원시 청소년들의 금연 의식을 높이기 위해 지난 21일 성원고에서 민·관 합동 금연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캠페인에는 협의체 아동청소년분과, 보건소 성원고 학부모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시 여성가족과 등 민·관이 참여해 금연 선언서, 금연 구호패, 담배꽂초 줍기 등의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의 금연 문화와 건강증진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협의체는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기관, 법인, 단체, 시설과 연계·협력을 위한 민관협력 기구로 7개 분과 100여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캠페인은 아동청소년분과 지속 사업으로 관내 다른 학교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최경식 시장은 "청소년들이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많이 참여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소방서, 안전한 여름철 위한 인명 구조훈련

남원소방서(서장 소재실)는 22일 여름철 수난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능력을 기르기 위해 주생면 급구조수사에서 수난사고 대비 인명구조훈련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이번 훈련은 여름철 수난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내수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 상황을 설정, 골드타임 확보와 현장 대응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강도있게 진행됐다. 주요 훈련내용은 △구조재원 현장안전관리 이론 △수중색법 및 수중 인명구조 요령 △비상탈출법 △익수환자 발생 시 저체온증·심폐소생술 응급처치법 등이며, 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인명구조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대 이동연 연구교수, 혈액관리본부장상 수상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이동연 연구교수가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로부터 표창장을 수상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이 연구교수는 지난 23년 동안 적십자 인도주의 운동에 참여, 지금까지 총 185회의 헌혈을 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동연 연구교수는 "코로나19 팬데믹 3년 동안에도 혈액수급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멈추지 않고 이웃사랑을 실천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헌혈을 실천해 내년에는 200회 이상을 달성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동연 연구교수는 전주대 산학협력단(김상진 단장)에서 산학협력 및 LINC 3.0 사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학생들이 농촌봉사활동 나서

전북대학교 학생들이 여름철 농촌봉사활동에 나섰다. 22일 전북대에 따르면 지난 20일 전대학술문화관에서 양 오봉 총장을 비롯한 대학 보직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농촌봉사활동 발대식을 갖고, 남원 인월면과 운봉읍 신내면 일원에 130여 명의 농촌봉사단을 파견했다.

봉사단 학생들은 이번 주말까지 남원 지역 일원에서 마을 환경 정리와 작물 수확 등 농번기 부족한 일손 돕기에 나선다.

이와 함께 전북대 대학본부 관계자들도 봉사 기간 내내 현장에 머물며 함께 일손을 도우며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양오봉 총장은 "코로나19로 주춤했던 우리대학의 농촌봉사활동이 다시 활발하게 추진되면서 지역 상생 등 여러 효과가 기대된다"며 "우리 학생들이 일손을 도우면서 농촌의 현실을 공감하고, 나아가 단합을 통한 공동체 의식을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남원시, 의료급여사업 내실화 총력

남원시가 의료급여대상자에 대한 다양한 의료지원 등을 통해 주민 복지 향상 및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의료급여 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제도로 남원시는 3,460세대, 4,578명이 있으며, 수급자의 의료상담과 적절한 의료기관 이용 유도를 위해 집중관리 10명, 고위험군 180명, 장기입원자 30명, 신규수급자 400명 등 총 600명의 의료급여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다.

또한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 및 재정 절감을 위한 맞춤형 사례관리 103명, 읍면동 순회교육 15회, 수시 상담프로그램을 적극 수행하고 있으며, 올해 신규 시책으로 65세 미만 의료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틀니와 임플란트 시술비를 지원하는 '헬스플러스 치아 지원 사업'을 추진, 시민들에게 큰 관심과 호응을 받았다.

한편 김은영 주민복지과장은 "의료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 및 상담과 선진지 우수 모범사례를 지역에 적용하는 등을 통해 수급자의 건강증진과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장수경찰, 안보자문협의회 정기회의 개최

장수경찰서(서장 정덕교)는 지난 21일 장수경찰서 3층 강당에서 2023년 안보자문협의회 정기회의를 열었다.

이번 정기회의는 정덕교 경찰서장 및 김숙희 협의회장을 비롯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입회원 등 4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와 장수경찰서 주요 추진 업무 설명회 및 안보자문협의회의 북한이탈주민 지원활동 공유 등 공동체 치안 활성화를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김숙희 회장은 "회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회원 상호간 친목도모와 협력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장수경찰서와 협력을 통한 적극적인 정착 지원활동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덕교 서장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으로 정착지원에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안보자문협의회가 적극적으로 실질적인 활동으로 지역 안보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줄 것을 당부했다.

/장수=고판호기자

알림

▲제회 장애인을 위한 문화예술콘서트= 일시: 24일(토) 오후 5시, 장소: 전주콩남문화광장, 주최: 한국문화예술진흥회 전북전주시지부, 주관: 전라북도장애인문화예술봉사단, 주요행사내용: 개회식, 축하공연, 장애인가수 초청 노래, 행운권추첨 등, 참여대상: 장애인 및 가족, 보호자 등